

## 국감 오늘 정상화 19일까지 연장 합의

이정현 7일 만에 단식 중단

미르·K스포츠 등 격돌 예고

새누리당이 지난 2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한다.

〈관련기사 3·4면〉

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서울 고검 등)·정무위(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한국은행)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애초 오는 15일까지 예정됐던 국감을 나흘 연장해 상임위별로 17~19일까지 진행하기로 국감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남은 기간 내실있게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3당이 모두) 공감했다"며 "상임위마다 사정이 있으니 각 상임위별 여야 간 사가 의논해 내실 있고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그간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향후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벌의 모금을 받았던 여러 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것"이라며 "열치기 수사로 일관한 우 수석 검찰 수사와 이석

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 등 수면 아래에 잠재해있던 여러 문제점을 다시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이 국감에서 국정 실적을 제대로 파헤쳐 행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국민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가다듬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자는 데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행하기로 국감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감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민생과 국가 현안을 위해 무조건 단식을 중단한다"며 "4일부터 국감에 전면 임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국정 긴급 현안을 챙기기 위해 무조건 국감을 포함한 의정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총 직후 이 대표는 곧바로 급급차로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정상화됐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이에 따른 검찰 개혁, 일명 '정세균 방지법' 등 핵심 뇌관이 산적해 있어 국감에서 여야 간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8면〉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주천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참가한 내·외빈들이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우병운 경북도 정무실장, 윤장현 광주시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란법 시행 1주일...변화 바람 ▶6면

올 여수 관광객 1000만명 돌파 ▶11면



KIA 가을잔치 매직넘버 1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상생·화합·번영" 지난 30일 광주시 광주공원 앞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2016 영호남문화대축전'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우병운 경북도 정무실장, 윤장현 광주시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영호남 '상생장터' 웃음꽃 피었다

'2016 영호남 문화대축전' 사흘간 광주천 특설행사장서 성료

광주·대구·전남·경북 단체장들 참석...문화교류 행사도 다채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해온 '2016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지난날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주와 대구, 경북지역 단체장과 주요 인사들은 지역 간 교류를 대표하는 이 행사의 확대 추진에 공감,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축제로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18면〉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주천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

화대축전' 개막식에는 영·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 행사의 의미를 새겼다. 윤장현 광주시장, 김승수 대구시행정부시장, 우병운 경북정무실장,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 김여송 광주일보사장, 여창환 매일신문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만남을 바탕으로 지역의 벽을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체육 교류 부문 등을 포함하는 등 행사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한 날씨에도 양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뜨거웠다. 호남 35개·영남 33개 등 총 70여 개 지역 농·수·축산물 특산물 부스가 설치된 '상생장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영호남 특산물을 소개하는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도 성황을 이뤘다.

지난 1일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눔의 쌀' 전달식은 상생·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경북지역 지진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전남쌀을 기부하는 행사로, 전남도와 경북도, 농협중앙회전남지

역본부·경북지역본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참여했다.

광주천에 마련된 수상(水上) 특설무대에서는 매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화개장터 경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영호남 예술공연 등 문화교류행사도 다채롭게 열려 볼거리·먹거리가 풍성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특색을 선율로 빛낸 영호남 생활예술공연단체도 갈채를 받았다.

'영호남 문화대축전'은 지난 2014년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지난 2015년에는 대구, 올해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 행사는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반환점 돈 광주비엔날레 '순항'

4일로 반환점에 선 제11회 '2016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이 제10회 행사보다 같은 기간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개막 후 3일 현재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유료관람객은 약 9만명으로 제10

회 4만8000명(전체 7만명)에 비해 약 두배에 달했다. 지난 2014년 행사 때 세월호 참사로 학생 관람객이 격감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의한 수치다.

2012년 제9회 행사에 비해서도 관람객이 늘었다. 당시 한달 간 약 14만명이 방문했지만 유료 관람객은 7만5000명이었다. 비엔날레 관람객 증가는 국립아시아문화

유료 관객 2012년보다 60% ↑

문화전당 등 작품 분산배치 효과

전당, 무등현대·우제길·외재 등 무등산권 사립미술관 등으로 작품을 분산 배치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2년 행사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무각사 등과 연계하며 총 64만5000명이 방문해 역대 4번째를 기록한 바 있다.

비엔날레 전시장에는 각계 각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중·고등·대학생

을 비롯해 지난달 24일에는 홍보대사 현빈이 방문했고 영화배우 유해진, 가수 최성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다녀갔다.

재단은 남은 한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오는 26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야간개장하고 입장권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한다.

한편, 올해 행사는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37개국 101작가(120명)가 참여해 252점을 선보이는 가운데 11월6일까지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불롬 피부로 선사합니다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료 무료) www.hera.co.kr

www.herasunglexus.com

광주전시장 080-384-7733  
천주전시장 080-263-7743